

# “하루아침 성취 있을수 없어요”

## 산문박의 禪

각자匠 오옥진 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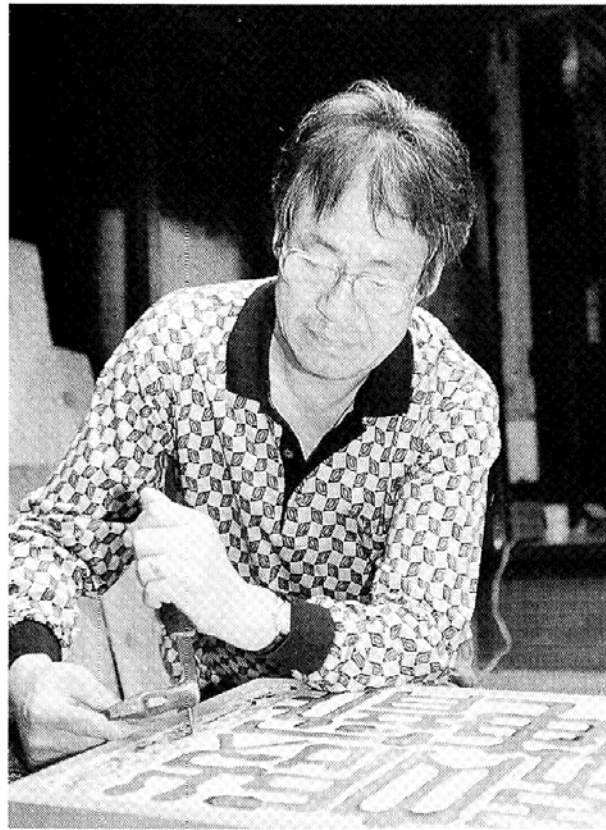
사찰에 가면 제일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이 대웅전을 비롯한 전각의 현관들이다. 사찰의 전경을 미처 보기도 전에 눈길을 사로잡는 이 현관들은 그 자체에서 사찰의 품격을 느낄 수 있는 명패격이다. 잘된 현관은 마치 빼어난 미인처럼 한없이 쳐다보게 만든다. 이 현관들의 품격을 좌우하는 것은 물론 잘 쓴 글씨지만 글씨의 기품을 한결 높이는 것이 바로 글씨를 어떻게 판각했느냐 하는 각(刻)술이다.

화엄사 송광사 금산사 선학원 불국사 동국대장각원 경국사 칠장사 등 수많은 유명사찰의 대웅전 일주문 명부전 주련 등을 판각한 이가 최근 인간문화재 지정을 받은 철재(鐵齋) 오옥진씨(63)다. 지난 11월 1일자로 목각장(木刻匠)이 중요무형문화재 제106호로 신규지정되었고 오옥진씨는 그 보유자로 인정받았다. 40년 판각에 쏟은 생애가 드디어 인간문화재로 결실을 맺은 것이다.

않는다. 또 오른쪽 집게 손가락은 1cm 좁아졌다.

“각판은 재창작입니다. 원 글씨의 비백을 적절히 조절해 새기는 것이 무척 중요하합니다. 도장을 파듯이 기계적으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글자체를 목판에 맞게 수정 보완해야 하고 글자간의 균형도 맞춰야 훌륭한 작품이 나옵니다. 즉 글자 하나하나에 집착하기 보다는 전체적인 균형을 고려해야 하고 또 전체적인 아름다움에 앞서 글자 하나하나의 완벽한 아름다움도 추구해야 하는 작업이지요.”

쉬지않고 한곳으로 흐르는 물과 같이 담담하면서도 투명한 마음과, 작업하는 자체를 즐기워하고 정성을 다하는 일념에서 제작되어 나온 작품은 보면 볼수록 좋다. 그는 글씨의 판각을 ‘소설의 영화화’에 비유했다. 아무리 소설이 훌륭해도 영화로 감동을 주기 위해선 각색이라는 또다른 작업이 훌륭해야 하듯



# “글자 집착보다 균형 고려하며 칼끝에 혼 넣어야”

판각은 목공예·서예·한문 종합예술  
4대째 가업... 현대 명필보 작업중

“기예란 것은 하루아침에 성취할 수 없습니다. 절대 욕심이 앞서면 안돼요. 목공예를 다른데서 배우고 온 사람들이 여기(餘技)로 각자를 배우러 와서는 일년도 안 채우고 다 이룬듯 나서는 것을 보면 한심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정진에 정진을 거듭하다보면 자신보다 남이 먼저 그 노력의 결과를 인정해 주게 마련이지요. 더구나 각자(刻字)는 목공예기능뿐 아니라 서예 한문 등에도 달통해야 하는 종합예술이기에 다른 것보다 성취가 더 어렵습니다.”

전통각자는 글자를 새기는 방법에서부터 독특하다. 다른 목판인쇄나 목판화는 칼을 손으로 잡고 하는데 반해 각자는 칼을 망치로 두드리는 방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숙달된 힘이 필요하지만 일단 숙련되면 훨씬 힘이 덜 들고 깔끔하게 처리되는 이점이 있다. 수십년 이 일을 해온 오씨의 손이야말로 칼과 더불어 살아온 이력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왼쪽 손가락 2개는 신경을 다쳐 잘 구부러지지

판각도 그러하다는 것이다.

지난 해까지 그는 팔만대장경을 보러 다녔지만 해인사에 다녀왔다. 판전에 들어서면 선조들이 대장경을 새기면서 기울였을 그 초인적인 정성에 숨이 막힌다. 마치 한사람의 숨소리인듯 가차없고도 단아한 판각술씨는 보면 볼수록 감탄이 나온다.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키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겠다는 지극한 불심 아니 고서는 될 수 없는 경지임을 느끼게 한다. 하나가 된 민중들의 구국화합의 혼이 불어넣어진 작업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판전을 나올때면 ‘마음의 눈으로 가능하고 혼이 들어간 칼끝으로 새긴 작품’이라는 중언거림이 저절로 나오게 마련이다.

자신이 만든 수많은 작품중 <훈민정음> (봉기월령가) (고려가요) (부모은중경도설 14편) 등을 가장 아낀다. 특히 훈민정음은 세종대왕기념관에 영구전시되고 있는,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그의 대표작이다.



오옥진씨가 서각한 화엄사 현판.

서각을 부각하는 사람중엔 무조건 비싼 나무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각하는 나무도 그 쓰임새에 따라 각기 다른 법인데 돈만 많이 주면 좋은 것이 나오는 줄 알고 때를 쓸 때는 답답하기 그지없다. “현관용은 은행나무, 잣나무, 춘양목 등이 좋고 인출용은 박달나무, 벚나무, 배나무 등이 좋아요. 또 나무도 충분히 말려 써야지 덜 말리면 나중에 휘틀러거나 굵이 가게 마련이지요.” 잘 말린 나무에 정성드려 새긴 사찰현판은 어제 만든듯 생생하게 살아서 사람들을 맞이하는 것을 본다.

증조부때부터 4대를 이어온 오옥진씨에게 이제 장남 윤영씨(36)가 후계자로 맥을 이을 예정이다. 그의 집에는 ‘원천제(源泉齋)’라는 현판이 걸려있다. ‘원천의 물이 끊김없이 솟아올라 웅덩이를 가득 채우고 난 뒤에야 흘러간다’는 뜻이다. 선조대부터 계승돼온 가업이 끊김없이 이어져 소중한, 국가의 무형의 문화유산으로 계승되고 발

전되길 원하는 오씨의 열원이 들어있는 글이다.

70년전에 정도영선생이 수전(手鐮)으로 <해동명가필보(海東名家筆譜)> 6권 1권을 목판본으로 펴낸 바 있다. 고조선부터 근세까지 우리나라 명필들의 글씨를 모아놓은 것이다. 이것을 영인 축소하여 지난 58년 문헌연구회에서 단행본으로 펴낸 것을 오옥진씨가 한 질을 소장하고 있다. <해동명가필보> 이후 현재까지의 작품들을 모아 <근역한목(楹域翰墨)>이라는 제목으로 목판본을 펴낼 계획이다. 이에 김충현 김동리 서세옥씨등 서예가 학자 문인 정치가 화가 등을 비롯 경봉·석주스님 등 당대의 인물 2백인의 빼어난 글씨 그림 등을 목판으로 새겨 넣을 예정이다. 한 10년을 잡고 있다. 이 일은 각자장 오옥진의 필생의 역작으로 기록 될 것이다.

이경숙 기자

### 이미타불 열불로 공부하는데...

**문** 저는 이미타불 열불공안을 공부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주인공에 밀리고 관하는 공부를 하라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답하고 막연하군요.  
(윤기중·서울 양천구 목동)

**답** 수행하는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나’라는 생각, 내가 한다 내 것이다 하는 아심입니다. 누구라도 사는 모습을 보면 금방 아들이 되었다가 동생이 되었다가 친구도 되고 부하도 되고 그러면서 돌아가고 있질 않습니까? 그러니 어느 때의 나를 딱 집어서 어떻다라고 고정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그것만이 있지요. 세상만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것 하나, 어느 한순간이라도 고정된 것은 없습니 다. 그래서 ‘나’라고 고정할 것은 없는데 그러면서 삼라만상은 여여하게 잘도 돌아간단 말입니다.

내가 비유로 가끔 말씀드리지만 누구나 영원한 생명의 불씨가 있어서 그렇게 돌아가는데 마치 저 바위가 구름때처럼 심봉은 돌아

###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지요

**문** 마음공부를 하는 목적은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는데 그 자유는 어떤 자유입니까? 어떤 종교에 속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고 봅니다. 또 사랑을 하려거든 참사랑을 하라하시는데 어떤 것이 진정한 사랑인가요?  
(인진규·호서대학교)

**답** 어머니의 자식사랑이 가장 아름답지요. 그러나 그런 사랑도 말로써, 몸으로써 표시해야만 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또 어머니의 자식사랑이라해도 진정한 사랑이 되려면 믿고 맡기는 한마음의 사랑이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자식이 밖엔 나갔는데 늦도록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혹시 무슨 탈이라도 났는가 싶어 안절부절하기 마련입니다.

그럴때에 ‘그래, 아무 탈없이 빨리 돌아오게 하는 것도 너 주인공만 하는 사랑이 아니다’ 하고 믿고 맡기는게 참사랑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게 되어있으니까 내가 마음으로 깨달았을 때 보낸진 전화를 걸든지 해야 저쪽까지 통해서 잘 돌아갈까 아니니까? 그런데 문 밖으로 들락날락하면서 애를 태운다면

**지 상 상 답**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팩스로 보내주시고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양문화재단 대승선법문고 답을 통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해 줍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가는 데에다 힘만 넣어줄뿐이란 말입니다. 내가 주인공이라 한 것은 이례해서는 각자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돌아가는 바퀴와 심봉이 돌아 아니기에 동동그러 주인공! 하라고 한 것입니다. 내 육신 몸집이 있는 것과 마음 쓰임새를 보면 얼마나 오묘합니까?

그러니 사랑받아서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좋다 싫다 따지지 말고 절로 여여한 주인공 자리에 딱 놓고 맡기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고 살지만 그렇게 맡겨놓아 쉬라는 것입니다. 행주와와 일체는 다 그 자리에서 나온 것이니까 그 자리에 되돌려 놓고 지켜보게 관합니다. 그렇다고 지켜보는 자와 지켜볼 대상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놓는 것도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고 놓고 지켜보는 것도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이니 사귀는 나는 그냥 놓고 지켜볼 뿐이다, 그러면 체험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참으로 오묘한 도리를 맞게 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답답하고 궁금하다 하는데 답답한 것도 궁금한 것도 다 그 자리에서 나온 것이니 ‘답답하게 한 것도 주인공 너, 답답하지 않게 하는 것도 주인공 너이니 내가 해결하라!’는 생각으로 놓아버려주세요.

놓으라고 하니 그냥 뉘대로 되리라 하고 방치하는게 아니라 모든게 다 주인공 자리로 나고되니 되는 것도 법, 안되는 것도 법이라는 믿음 하나를 붙잡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관하는 생활입니다.

그러다가 일체 경계에서 될 수 있는 무심관을 터득하게 되는 수도 있습니다.

막상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안중은 소리부터 하게 됩니다. 정도가 좀 지나치다싶으면 ‘너 정신이 있니 없니’ 하면서 야단을 칩니다. 어떤 것이 진짜 사랑이었습니까?

또 이 공부를 해서 자유를 얻는다고 하지만 본래 누구에게나 자유자재의 권리가 주어져 있고 본래부터 누구나 자유입니다. 그런데 내가 저를 구속해놓고는 새삼 자유를 찾겠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누구나 다 오신통을 갖춘 시스템이라고 해도 됩니다.

내 속에 빠지도 있고 탐지기도 있고 무신 통신, 레이다, 망원경, 컴퓨터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게 내 안에만 연결됐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 감수이 감돌이와도 다 연결이 되어있고 날아가는 새나 풀 뜯는 소, 저 들장승하고도 다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세상만물이 돌아가는 게 그렇게 자동적으로 연결된 장치와 같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본래부터 자유이지요.

내 몸뚱이 오장육부로 다 통하고 자신 목신 들하고도 다 통하고 소를 건지려면 소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그렇게 자유자재합니다. 그래서 다 공했다 하는 것입니다. 일체가 다 한마음으로 통하니 어느때 어느 장소에 ‘나’라고 할 존재가 따로 있지 않아요.

그냥 공 아십니까? 그러나 부자유할 게 본래 없죠. 앞서서 말했지만 본래 자유인데 스스로 관념의 감옥을 만들고 아상을 지어 구속하고, 허구한날 그렇게들만 하고 사니까 자유를 찾아라 하는 것입니다. 본래부터 자유인 줄을 이르게 진정한 자유요 이 공부의 지향하는 것입니다.

# 21세기 대학생포교의 전기마련과 대불련 혁신을 위한 후원과 사은의 밤

후원의 밤에 모시는 글

“63년 창립이후 34년동안 한국불교의 암울하고 혼란스러웠던 그 중심의 현장에서 불교를 짚고 그리고 사회화시키는 최일선에서 흔들림없이 너무나 큰 역할을 담당했던 진리의 벼들, 대불련!

관심과 지원이 소홀했지만 한국불교 현대사를 온몸으로 이어온 대불련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 현 시점에서 이제 우리는 그 발판을 마련해 주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불기 2540년 11월 일

후원의 밤 추진위원장  
조계종 포교원장 성 타  
대불련총동문회장 명호근

■ 일 시 : 1996년 11월 14일(목) 오후 7시  
■ 장 소 : 한국일보 송현클럽

### 추진위원회 기구표

- 중명**  
월하, 관용, 서용, 석주, 원담, 혜양
- 고문**  
월주, 고산, 광덕, 녹원, 도문, 락해, 무비, 무진장, 법정, 윤덕, 월운, 월탄, 일타, 지관, 철홍, 초우, 혜초, 고은, 서동각, 이기영
- 지도위원**  
광우, 도관, 도영, 도후, 목산, 무공, 법장, 법조, 법타, 법파, 보각, 선용, 설봉, 설정, 설조, 설우, 성우, 성해, 송산, 임도, 오현, 원산, 월관, 정락, 종열, 종하, 종원, 지산, 지하, 천운, 태웅, 현교, 현근, 현애, 해광, 해산, 해경, 홍파, 권익현, 김태호, 목정배, 박상규, 박원일, 서석재, 송석규, 안동일, 정상구, 조해녕, 주양자, 오세환, 한정섭
- 상임위원**  
각현, 능관, 도법, 동광, 명진, 무상, 무어, 범등, 범륜, 범성, 범현, 부동, 상문, 상열, 수만, 여연, 영담, 원종, 원택, 원학, 원행(안국사), 원행(월정사), 원애, 인행, 일연, 지승, 장곡, 장운, 정우, 정휴, 종광, 종림, 지광, 지만, 지연, 지흥, 진관, 청하, 평상, 평중, 현기, 현당, 현운, 현장, 현진, 해산, 해장, 화법, 효리, 고순호, 고준환, 곡민연

- 권기중, 권오현, 김광복, 김기원, 김요주, 김선근, 김승권, 김재원, 김종대, 김중호, 김태양, 김준중, 김홍국, 남경수, 남지성, 류진수, 박세일, 박진완, 박찬주, 백남석, 성기태, 송봉우, 송성선, 신상철, 신석봉, 신호철, 양근하, 여의구, 오형근, 옥치달, 윤세윤, 윤제철, 이강범, 이병걸, 이상기, 이상범, 이상준, 이선형, 이순규, 이영지, 이용부, 이윤우, 이정백, 이채영, 임동주, 장미자, 전보상, 전정우, 전찬구, 전정철, 정의행, 정의권, 정현용, 조용걸, 조원환, 천우성, 최동수, 최인석, 추미애, 최정준, 현익채, 홍사성, 홍성복, 홍순도, 홍의률

### 집행위원장

- 집행위원**  
강동훈, 강명호, 강성식, 강태진, 고희경, 공훈배, 공인창, 권상혁, 권태경, 김경호, 김관태, 김남수, 김대광, 김동훈, 김병정, 김봉래, 김연호, 김영국, 김영현, 김용길, 김원우, 김유신, 김인규, 김종찬, 김지흥, 노태훈, 도필선, 류덕산, 류정우, 민정현, 박미선, 박성필, 박선애, 박용규, 박용환, 박재현, 박정규, 박종호, 박창수, 박주자, 박홍식, 박형민, 박호창, 박홍수, 박희승, 배민애, 배재민, 배준상, 백용구, 백혜은, 백호출, 변대용, 사유선, 서동석, 서정숙, 살동철, 송상훈, 송인택, 신규락, 신원식, 심정섭, 안상환, 여태도, 오도선, 우성라, 유지원, 유정길, 유지호, 윤영희, 윤예중, 이광재, 이남재, 이병규, 이석식, 이영근, 이영철, 이영철, 이재원, 이주영, 이준영, 이지방, 이희중, 이희선, 임병화, 장도연, 장성원, 장연조, 전대식, 전재성, 전형근, 정삼환, 정선에, 정용희, 정용정, 조병환, 조성현, 주성환, 최순천, 최주선, 최철호, 하춘생, 한정광, 허 권, 허정현, 현병근, 홍은미, 홍종표, 황태중 (이상 가나다순)

추진위원장 성 타 · 명 호 근